

궁금한 여성 노동,

짧지만 긴 이야기로 풀어봐요~

112주년 메이데이 여/생 연세활동단에서
여성 노동에 관한 열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모두 바쁘지만 여성 노동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최근의 상황과 이슈 그리고 그것들을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때: 4월 23일 (화) 늦은 5시
4월 27일 (토) 늦은 2시
곳: 총여학생회실 (학생회관 3층)
문의: 2123-3645



5월 을

조금씩 시작하는

101가지 방법



112주년 Mayday
여성의 눈으로
노동 바라보기

112주년 MayDay 여/생 연세 활동단

남근의 여성화와 성별화된 착취에 맞서
여성주의적 저항을 전면화하자

여聲

01 들어가며

02 빈곤의 여성화와 성별화된 착취에 맞서

여성주의적 저항을 전면화하자

04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 그것을 알려주마

06 여성의 눈으로 노동사안을 보자

08 여성노동 고한일기

15 여성노동운동사

16 이럴땐 이렇게-알기쉬운 여성법률상식

20 [광고] 여성 노동 열린 세미나

21 [광고] 취업대란

들어가며

112주년 대외대회를 맞아 '여성 노동'에 관한 잡지만 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성'과 '노동',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혹시 '노동'이나 '노동자'라고 하면 짐작 그을린 채 평론과 열하며 '가죽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남성을 떠올리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여성 노동'은 어색한 조합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집에서 노는 여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잘 할 것이지"라는 말 속의 여성은 정말 일하지 않는 것일까요? "식당에서 밥하는 거, 원래 집에서 하던 일 좀더 많이 하는거 아니냐"라는 말처럼, 여성들의 일은 원래 주어진 대수롭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손님을 직접 대하는 일은 무뎉직한 남자들보다는 세심한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일" 혹은 "여사원은 직장의 꽃"이라는 말처럼, 옛 여성들은 일터에서 항상 '여성다운'을 중요시해야 할까요? 이런 예들은 극히 미미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의 일이 '노동'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거나 명분지 않고 하찮은 일로 여겨지고 있으며 혹은 원래 여자들에게만 '일'만은 일로 취급됩니다.

여기 우리는 좀더 모든 여성은 '노동자'이며 현재까지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성 의 시작으로/입장에서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플 읽다보면 "그래, 그럴 그럽다 치자, 그런데 옛 나랑 아무 상관없는 여성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의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 왔습니다. 우선, 우리 대부분이 어머니와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당신이 여성이라면 여성 노동자는 바로 당신의 가까운 미래 혹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취업난'이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장무만 하다가 결혼, 출산과 함께 일을 그만두는 고학 력 여성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손에 잡히는 말들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여성 관련 노동법 개악, 그것을 알려주마!

지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소위 '모성보호법' 을 기억하시나요?

잠시 그 과정을 짧게 더듬어 보자면

- 2000년 4월 정부가 모성보호관련제도 신설 추진 결정
- 2000년 6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2000년 8월 양대노총, 여성단체, 여성노조 등이 모여 여성노동자관련법 개정 연대회의 결성, 법개정 청원
- 2001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나옴. 이에 이견을 표출한 단위가 연대회의에서 빠짐
- 2001년 6월 환노위 안대로 통과

주요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간접 차별 개념 구체화,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책임 조항과 예방교육의무화, 권리구제절차 강화, 출산휴가 기간 확대(60일에서 90일로) 및 사회분담화, 육아휴직 남성노동자에 확대 및 휴직기간 중 소득보전.

□근로기준법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규정 완화(모든 여성에 대한 제한금지→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내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 휴일 근로 제한 규정 강화. 근로기준법상 '여자' 를 '여성' 으로 개정하여 평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나타냄.

내국의 여성화와 성별화된 폭력에 대처
여성주의적 계몽은 어떤가

여
聲

이 중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노동자들 노동조건 개선의 가지를 가져올 것이냐 악화를 가져올 것이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규정 완화가 지금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변형 근로제 등 노동 유연화 정책과 맞물리게 되었을 때, 여성노동자들에 가해지는 초과 착취가 여성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더욱 해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할 지라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시간외 근로가 확대된다면 이후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편 임신한 여성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 제한 규정 강화는 그 자체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임신한 여성들에게 유해한 환경은 일반 여성에게도 유해한 환경입니다. 또한 유사한 휴가가 통과되지 않은 것과 연관해볼 때 이는 사회적 노동력을 재생산한 여성만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과는 별개로 '모성보호' 라는 개념을 대신할 개념이 필요합니다. '모성보호'란 개념은 모든 여성은 잠재적인 어머니이며 어머니로서의 여성만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내죠. 게다가 '모성보호'라는 말 속에는 장차 사회의 노동력이 될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만 있을 뿐 여성 자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생산과 양육의 의무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닌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권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눈으로

노동 사안을 바라보자!

■ 주5일 근무제

세계최장의 노동 시간을 자랑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기에 '주5일근무제'가 제기되었는데요. 현재 재계가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휴 무급화, 월차 폐지, 탄력적 변형근로제, 시간외 임금 할증률 인하,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랍니다. 특히생리휴가의 경우, 실제 사용률이 낮은 것은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이며 여성들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문제를 '아기를 낳을 몸'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주휴가 무급화되더라도 쉬는 쪽을 과감히 택할 수 있는 일부 정규직 남성과 새로 채용된 일자리에서도 일해야 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주5일 근무제의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5일 근무제'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부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겠죠.



탄력적 변형 근로제

일감이 많을 때는 밤새기를 밥먹듯, 없을 때는 놀게될, 인간의 생활리듬을 파괴 건강에 악영향.

시간외 임금 할증률 인하

야간 근로 제한이 해제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절대적 착취 증가

■ 최저최저임금제

현재 시행중인 법적 최저임금은 월 47만4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으로 먹고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그런데 왜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문제가 중요하냐구요? 아시다시피 여성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 기혼 여성이고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인데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용역 업체의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춤으로써 입찰가 경쟁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게 되죠. 따라서 최저임금제 인상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가족 임금제 하에서 차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한사람의 노동자가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최저 생계비'를 뜻하는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임금제란?

남성인 가정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제도 말하자면 '가족수당'이 남성가정에게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성만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가족임금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죠.

여성 노동 교환 일기

여성과 일에 대한 여대생 친구들의 짧은 생각들을 들어봅니다. 그럼 일기장을 잠시 훑어볼까요?

선아의 일기

여자들의 일은 일도 아닌가 뭐

아 배고프다 수업이 연달아 있어서 2시에나 공강이었다 부를생울 목표로 친구와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땀걸 그 시간은 배식을 안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내 친구는 '왜 이렇게 아줌마들 쉬는 시간이 길어' 라고 하면서 불평인데다 집에서 댄스 하는 게 '땀' 일인데 땀하는 게 직업이니 그렇게 쉬운 직업이 어딴다고 한 술 더 뜨기 시작한다 예후 여름이고 겨울이고 긴 강화를 심으시고 쾄다란 술 앞에서 위험하게 계시는 아줌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왜 여자는 당연히 '쉽게' 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왜 땀을 하는 엄청난게 강도 높은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땀땀만이 아닌 것 같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강경 노동 숙련을 요하는 백화점 판매직이나 보험설계사 보살핌이나 돌보는 일 사람에 대해 강정을 많이 쓰는 일들 가사노동과 관계된 일들 각종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노동에 대해서 그냥 '여성의 일 사소한 일 쉬운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것 같다

여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강성만 가득가득 풍부하고 집안일을 잘하지는 않았을텐데 왜



이런 일들을 '여자들의 일' 이라고 규정하는 것일까 왜 또 이런 '여자들의 일' 은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진영의 일기

요즘이 여성의 시대라며?

여보세요 오늘 뭐했나고 나 오늘 좀더 양전하고 우아하게 포즈 취하고 다시 사진을 뽐얏어 넌 아직 뭘 모른다 이력서를 뭘 그렇게 공들여서 쓰니 그거 말짱 헛거야 머라고 나보다 성적도 나쁜 남자동기는 벌써 줄음데 취지했다고 우리 과 여자선배들도 아직 취지가 안됐는데 개가 어떻게 벌써 머 남자들은 끈이 있다고 참내 여자후배는 후배도 어닌가 이진 뭘 여자선배들도 취지해봐야 몇년 다 너지도 못하구 현경이 개 잊잖니 하도 취지가 안돼서 결혼했다는데 나도 결혼이나 할까 어우 원래 내가 꿈꾼 미래는 이게 아닌데

해이의 일기

이거나 먹어, 사장아



여보세요 아 나 오늘 사장한테 이거나 먹으라고 했다 왜그러나구 아 흥분안하게 생겼니 사장이 나한테 하두 커피커피커피커피커피 그러길래 난 그런일 하러 온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지 그랬던 그럼 뭐하러 왔나면서 내 불을 살짝 건드리는거야 머 그정도에 이거나 먹으라고 하진 않지 글썽 사장이 나한테 얼굴이 먹음직스러운 사과 같다는 등 맛있는 데는 따로 있다는 등 그따 소리들 하는거야 웅큼하게 쳐다보면서 손이 내 허리로 올라오길래 커피뽐으라고 준 돈 업속에 넣어 줬어 아주 깔끔하게 회사 그만 댔다 머 응 그러게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 나 이제 어쩌나

필요한 건 노동력이 아니라 여자들의 성?

심촌 거리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 불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심촌 거리를 지나가서는 여러분 그냥 지나치기 마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는 나레이터 모델들 덕분이다. 그들 자체가 불쾌한 게 아니다. 섹스어필하는 옷과 너무 높은 굽 하루 종일 설 세 일이 아리따게 움직이고 발랄한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방식의 서비스가 그들에게 강요되는 것. 지나가는 남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한 것. 그래서 나는 민망한 느낌에 도저히 눈 둘 곳을 모르고 눈 어색하게 그 옆을 지나쳐간다. 그들을 뒤로하고 걸으며 어쩌면 이 사회는 우리 여성들의 성을 이렇게도 밤 먹듯이 팔아먹나 하고 분노하는 거지.

내 친구들 아는 후배가 나레이터모델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남자였으면 이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눈 앞에 뻔히 보이는 것만 성을 파는 거라면 문제가 조금 간단할 지도 모르지. 취직한 언니들은 술자리에서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술을 따라야 하고 사무실의 꽃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예쁜 여자의 일이라는 것들을 도맡아서 하고 노동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성을 파는 게 아니냐고.

'먹고 사는' 일은 끝이 없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 생활하게 되었다. 누구의 강해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물론 기쁜 일이었으나 먹고사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았다.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한다고 하지만 빨래를 하기 위해 빨래장을 분류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퍼서 말리고 때때로 다림질하고 밥 한번 해 먹으려면 시장을 봐와서 쌀을 씻고 밥하고 때때로 냉장고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해서 치우는 이 모든 일은 정말 어렵지만 했다. 익숙치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사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엄청난 두뇌활동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쪽글이나 레포트 쓰는 것처럼 한 일주일 개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장 빨래를 하지 않으면 입을 옷이 없고 일 정도 굶고 한꺼번에 밥을 먹으면 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 더 어렵고 일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분명히 바닥을 닦았는데 며칠만 지나면 먼지가 수북하여 또 같은 노동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은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엄마는 네이 네도록 해오신 것이었다니. 맨날 책상 치워라 왜 이렇게 옷을 자주 벗어놓느냐 그 때는 짜증났던 엄마의 장소리가 세상 다르게 다가온다. 평화로운 가정, 양락한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엄마는 모든 희생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었다.

수정의 일기

아르바이트, 정말 만만치 않아

대학에 처음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나도 어른인데 용돈은 내가 벌어서 써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다.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은 역시 과외. 그럴지만 돈 버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자기가 과외를 미뤄놓고서 내가 자꾸 미룬다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학생 수업할 때 문을 살짝 열어놓고 었듣는 어머니들. 그리고 몇 달 안가 팔리기 심상. 그나마도 요즘은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두 달 전 시작한 것이 일식집 주말 서빙 아르바이트. 자주 가던 식당이었다. 그런데 웨딩 앉아서 보는 것과 직접 일하는 것은 정말 달랐다. 다섯시간 이상 서 있으면서 뽕뽕 뽕는 다리 손님이 바뀌어야만 밥을 먹는 불규칙한 식사시간.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이 부르면 웃으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스트레스. 그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시장당. 뭘이었는데 어쩌다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 분쯤 더 일하는 날이나 다른 알바생이 안 나와서 혼자 뛰여 다녀야 했던 날에도 기본 시급에 더해지는 돈은 한 톨도 없었다. 처음엔 재미있던 것이 이제 손님이 더 많아 와도 내가 받는 돈은 똑같다는 생각에 가게가 잘 되어도 심이 안 난다. 나는 얼마 안 가 이 일을 그만두겠지만 심년 이십년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주영의 일기

무자식이 상팔자?!

오늘 영마가 드라마를 보다가 대뜸 물었다. 너는 취직하고 결혼해서 애 생기면 어떡할 거냐. 나는 별 생각 없이 영마는 내가 몇살인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해버렸다. 그러자 영마는 나의 이중사촌 언니가 얼마 전 애를 낳으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 두기로 했더라. 영마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했다. 하긴 영마가 직장 나가는 동안 외할머니가 안키워 주셨으면 영마는 직장 못다닐 뻔 했다. 그 와중에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하면 의사가 영마가 안 오고 할머니가 온다고 뭐라 그래서 이럴 땐 꼭 아빠가 아니라 영마다. 영마는 그만두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 신문에서 읽은 기사가 생각이 난다. 작년부터 최대 네동안 한달에 만원을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걸 공무원들에게는 좋지만 일반회사에서는 설치가 안다고 했다. 처음에 나는 만원으로 뭘 먹고사나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보다. 상사들 눈중에 돌아오면 자리가 없을 거라는 형박이 장난이 아니란다. 그렇다고 회사를 계속 다니기에는 보육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세금 건어서 뭐하나 그런데 안쓰고 정에 한 의대 다니는 선배한테 들은 얘기에 정신과 교수가 애들 낳고 집밖으로 도는 여자들 때문에 정신병 나는 애들 많아 라는 얘기를 했단다. 애는 같이 낳았는데 책임은 여자들에게만 있나. 우썬 애를 낳지 말아야 하나

언니의 하루

이번 2월에 졸업한 언니는 취업대란이 이 시기에 운중계도 취직이라는 걸 했다 처음에는
싱이나 옷을 만드는데 언니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져갔다 회사일이 많이 피곤한가 아
아 나도 좀 일으면 졸업인데 거릴게 살게 되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짝 언니의
얼굴을 꺼내 보았다

2월 25일

첫출근날이다 러비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 잘 부탁 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내
자리를 배정받았다 20살 입학 25살에 취직 앞으로 내 인생을 그려본다 29살 직장
에서 안정된 자리를 잡고 sweet home을 꾸려야지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우히히

3월 4일

오늘도 하루는 복사로 시작된다 아침마다 복사할 건 왜 이리도 많은지 아침 회의 다
얼어져 버리면 좋겠다 어대리다 이번에는 스텝을 해오겠다 제길

3월 20일

외부손님이 왔다 과장이 커피를 타오른다 어제 대리가 시킬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바
거나갔는데 이번에는 별 수가 없다 어쩌지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버릴까

4월 1일

생리가 있다 편한 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회의 때 복장으로 한 소리를 들었다 소풍왔
나고 한다 어대리도 박과장도 매일 회사로 소풍오는데 왜 나는 안되는 걸까

4월 30일

어제 일기 쓰기도 피곤하다 29살 커리어우먼의 꿈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커피카피아가씨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커피 성분품을 시키
는 부장에서 멋지게 사포를 던지는 모습을 하루에도 번씩 상상만 한다 여성배들
도 다들 이렇게 살아온걸까 언니들을 만나고 싶다

일제하 여성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았나?

-1931년 평원고무공장 파업

1920년대부터 평양지역에는 고무신 공업이 발달했다. 일본인 공장
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선인들의 고무공장이 일본인 공장
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값싼 임금을 받고도 묵묵히 일하는 여
성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의
수는 남성노동자의 2배를 넘었지만 임금은 남성노동자들의 반을 밑
돌았다.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남자 감독관의 욕설/구타/성
폭력에 계속 시달렸다. 1929년 세계 공황 이후 사정은 더욱 악화되
어 임금인하, 정리해고, 노동시간 연장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던 중 1930년 평양에 있는 10개 고무공장 노동자 1,800여명
이 임금인하 반대부터 시작하여 단결권, 단체계약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하였다. 이 노동자들 가운데 3분의2정도가 여성노동자
들이었으며, 이들은 산전산후 3주간 휴가 및 생활보장, 수유시간의
자유와 같은 요구조건도 내걸었다. 1931년 5월 16일, 평원 고무공
장에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임금인하 봉고에 여직공들 49명이 즉
각 파업으로 맞섰다. 회사에서는 5월 28일, 이들 모두를 해고하고
29일 새로운 남자직공들을 고용했으나, 파업 여공들은 길에 신(新)
직공들을 태우고 가는 전차 앞에 엎드리고, 산적으로 길 위에 앉으려
함의였다. 이에 평원 고무공장 직공 1,000여명이 함께하여 이들의
파업을 도왔다. 공장 측은 파업단의 일부만을 채용했으며 파업을 일
킨 사람 중 몇 명은 체포되었다.

-여성사 연구모임 길박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서》
〈울밀대 위의 투사,
감주홍〉 요약 발췌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 -동일방직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197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동청의 〈월간 노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77년 6월 현재 여성의 급여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 41%에 불과
하다.

1972년 동일방직 노동조합에서는 한국 최초로 여성 지부장을 배출
하였다. 여성 지부장이 선출되자 노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회사측에서는 남성노동자들을 포섭하여 노조 파괴 공작을 펼쳤다. 회
사측에 대수된 대의원들은 여성 대의원들이 주도하는 대의원대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이 와중, 1976년 경찰은 여성 지부장 이
영숙과 여성 총무부장 이흥자를 연행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이 연
좌단식농성을 벌였고, 단식농성 3일째, 경찰은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 72명을 연행해갔다.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쟁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
들이 '불경이' 라고 몰아붙이고, 남성들을 동원하여 여성 노동자들
에게 폭력과 심폭력을 가하여 탄압했다.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
쟁은 1978년 4월1일 사측이 단식농성에 가담한 126명의 노동자
들을 해고시키자 이에 맞선 복직투쟁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여성사 연구모임 길박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서》 〈서
글픈 '공순이' 에서 담당한
'노동자'〉 요약 발췌

이럴 땐 이렇게

-알기 쉬운 여성법률상식-

"월경하는 날의 고통이란..."

-생리휴가-

Q : 소피야 양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고통이란 이루 말로 할 수조차 없었다. 아무리 육모초니 뭐니를 달여 먹어보아도 월경하는 날의 고통이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듣기로는 '생리휴가'를 법을 규정하고 있다는데 소피야 양이 근무하는 경원물산에서는 누구도 생리휴가를 찾지 않고 있다. 다른 여직원은 찾지 않는 생리휴가를 혼자서 주장하기도 멋진지라, 한달에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데, ... 고통이 심한 날이면 생리휴가대신 일반휴가를 내곤하는 소피야양, 과연 생리휴가를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회사는 유급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

A :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개의 여성근로자들이 이러한 생리휴가 규정이 있다는 정도만 막연히 알고 있을 뿐, 그것이 강제규정인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리휴가를 찾는다는 것이 남자근로자들 보기에 괜히 놀림감이 되거나 기분이 그렇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찾지 않고 있어서, 위 규정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형편이다. 최근 생리휴가를 무급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재계에서 제기되어 논의 중이라고 한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차별대우-

Q :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 시험을 치른 홍닥터 양은 힘든 공부를 마치고 의과외사가 되리라 다짐했건만, 인턴 시험을 응시한 사구라 병원에서는 총 20명 정원에 여성 합격자를 5명으로 제한하여 흠양을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응시자 가운데 10위를 차지한 홍닥터 양으로선 자신의 탈락 동기 너무 부당하다 싶어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했지만, 사구라 병원은 '외과는 여성의 나약한 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이다.

-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

A :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법 제23조 제2항) 동일한 모집채용에 있어 남녀 모집 연령을 달리 정하거나, 군필자만 응시하도록 하여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경우, 여성에게 미혼·용모단정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 동일 직종에서 남자보다 여자를 적게 채용하는 것 등은 차별대우의 몇몇 사례들로서 위 법에 위배된다. 홍닥터 양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나 검찰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그 병원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위 병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금은 똑같이 냈건만..."

-임금승진상의 차별대우-

Q : 일류여대를 졸업한 완제품 양은 섬유업체인 실오라기물산에 특채로 입사하였다. 그러나 똑같이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대졸 남자직원인 김반쯤 씨와 월급을 비교해 보니 자신은 김씨의 월급의 80%에도 미치지 않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또한 회사 방침상 남자직원들에게는 입사후 7년이 지나면 대리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 반해 여직원에게는 그런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무지 승진의 기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능력으로보나 학벌로 보나 무엇하나 하자가 없는 완제품양, 회사측의 차별대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차별대우 시정 요구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와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 6조의 2항)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할 경우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

완제품 양의 경우도 위에서 예시한 임금 및 승진에 있어 차별 대우를 당한 경우이므로, 회사 대표를 노동부지방 사무소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그 시정 및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3년간 남자 직원에 비해 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임금지급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임금, 무보수 그대 이름은 주부"

-전업 주부의 일일 수입 산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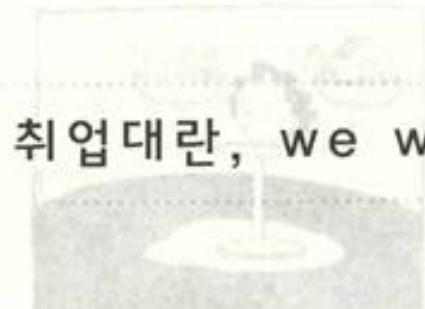
Q. 메이퀸 여사는 일류여대인 리화여대를 졸업한 인텔리 주부로서 몹시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 메이퀸 여사는 1주일에 3알씩 일당 3만원을 주고 파출부를 불러 가사를 돌보게 하고 있었다. 메이퀸 여사는 얼마 전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가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에 부딪쳐 오른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치료는 무사히 마쳤으나 의사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다리를 조금 절게 될 것이고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메이퀸 여사에 대한 보상은 허무맹랑하여 파출부보다도 더 적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전업주부는 도시노동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A. 우리나라에서는 전업주부의 각종 재해나 일상적인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용노동자의 일당과 취업 가능일수 2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노동일금이란 보통 일반인이 아무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고도 일하여 얻을 수 있는 1일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메이퀸 여사의 경우, 자신의 학력, 가사 노동의 양과 질 등을 모두 무시당하고 단지 일용노동자의 일용 노임인 22,300원을 기준으로 매월 557,500원(22,300X25일)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다리를 다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위 돈은 메이퀸 여사의 노동력이 메이퀸 여사의 집에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가사노동을 돌보아 주고 있는 파출부보다도 더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전업 주부는 일용 노동자와 달리 30일 꼬박 일하고 있음에도 25일 밖에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 내용은 「말뚝아 일어나라 개여러」(이명숙, 김경은 공저, 웨이에서 발행) 정리하였습니다.



취업대란, we will survive

세상 살기 만만치 않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옵니다
어떤 언니는 40여장이나 되는 이력서를 뿌렸는데도 연락 오는 곳이 없다고 하고
어느 여 선배는 남자들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끼리 밀어주고 쫓겨주며 자신에게 돌아오
는 것이라고는 복사 더미밖에 없는 회사, 하루에도 100번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깊은 우울함과 불안에 더 익숙해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이미 내 나이를 거친 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겪어야
만 할 냉정함,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요구되는 불평등과 그에 대한 해결을 나누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여선배들의 성공담뿐만 아니라, 앞에 닥친 일들에 때
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면서 해결해나간 평범한 여선배들의 얘기도 함께
들고자 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스승이자, 동료입니다.

세상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지레 포기하는 것도, 너무나 순진하
게 마냥 잘되리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향해 꿈의 나라를 떠는 것도 적절한 자세는 아닌
듯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희망의 목소리로 우리의 미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해 봅시다. <취업대란-we will survive!>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부딪
힐 많은 문제들에 대한 예방주사가 되어, 여학우들이 든든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나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자격증을 따는 것만큼, 900을 넘는 TOEIC점수를 가지는 것만큼, 동시
에 세상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로부터 듣는 그녀들의 삶
의 이야기, 그 많은 문제와 해결의 이야기, 그리고 경험과 사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없이 훌륭한 준비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취업대란 속에
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we will survive!!!

날짜	행사
5.2.화 6시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 <만.꽃.안>상영 & 감독과의 대화
5.6.월	여성회관 앞 삼철 구조물 (취업대란 주간 동안) -자신만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대학의 여학우들 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카리어우연의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까? 적성검사 실시 -취업대란행사가 있는 한 주 내내 진행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5.7.화 7시	강연회 -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좋은 학점과 자격증 이외에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자라는 무엇인가. 문화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여성들이 놓여있는만큼 그 분야에서 성공한 여선배의 살아남기 스토리를 들어보자
5.8.수 7시	1부-토크쇼 전공, 일하는 분야별로 여선배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사회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면서, 불평등을 알아보고, 가볍게 웃으며 권여치 주는 법을 배우자- 2부-선배와 만나는 시간 토크쇼의 여선배들과 소도입을 구성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초학우를 배우기, 또 얘기하고 나누어보세 취업대란을 즐겁게 보내나갈 수 있는 기분이 되자-

